

부록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홍릉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목적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거쳐 서울의 민생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9년 10월 30일 15:00
- 장소: 서울바이오허브 세미나실A

발표주제 및 토론자

- 발표주제
 - ‘홍릉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릉활성화, 기관과 지역 간 Win-Win 전략’(김현우 KIST 팀장)
- 토론자
 - 김상환 한국기술벤처재단 센터장, 김현우 KIST 팀장, 신창호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등



[부록 그림 1] 홍릉 도시재생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발표 1: 홍릉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 홍릉 일대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 과정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위한 연구기관,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추진
-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100여 년에 걸친 역사와 함께 대학도시, 연구도시 등으로 현재까지 발전해 온 홍릉
 - 1966년 KIST를 시작으로 KDI, KAIST, KIET 등 국가 주도의 국내 최초 종합 연구단지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산업,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이 집적하여 한국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첨단기술 개발과 경제 등 산업정책 수립의 견인차 역할
 - 1970년대 중반 이후 홍릉 연구단지가 물리적으로 과포화되어 대덕연구단지를 조성
 - 2003년 이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전하여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조성하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이전하여 수림아트센터 조성
 - 2014년 국방기술품질원이 이전하여 국방연구원으로 활용하고,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이전하여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
 -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홍릉 일대의 바이오·의료 벤처도시 육성과 지역재생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중앙정부는 메디클러스터와 R&D 창업거점을, 서울시는 서울바이오허브와 서울바이오 펀드 조성 및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공간 마련
 - 홍릉은 대학과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고학력 연구인력이 집적된 4차 산업 관련 연구역량이 풍부하며, 도시계획적으로 저밀도, 보존중심의 토지와 저이용, 미이용 개발잠재력 등을 보유
 - 그러나 대중교통 연계 체계 미흡으로 거점 기관 간 연계 및 청량리역 광역접근성 활용에 한계가 있는 등 역세권에 둘러싸여 있지만 노후화되고 단절되어 고립된 섬으로 존재
- 홍릉 일대 도시재생 비전 수립 방향
 - 홍릉의 잠재력과 취약점을 고려한 지역재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24시간 연구하고 거주, 생활하며 놀 수 있는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목표
 - 3대 과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고, R&D 맞춤형 다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역사·자연 및 지역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창출
- 홍릉 일대 도시재생 기본구상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

- 도시재생 거버넌스 추진체계
 - 경제기반형 특성을 반영한 관련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고 재생사업별 협력체계도 구축
-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운영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기업(CRC) 육성 및 지원
-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 평가로 평가지표 피드백 및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핵심지표 선정으로 객관적 사업성과 검증체계 마련



발표 2: 홍릉활성화, 기관과 지역 간 Win-Win 전략

- KIST는 선진기술 추격을 토대로 국가 발전 선도
 - 1960~1970년대는 동북강선 제조, 포항제철 종합계획 수립, 중화학공업 발전계획 수립 등 산업화의 싱크탱크 역할
 - 1980~1990년대는 인조 다이아몬드 개발, 도핑컨트롤 기술 발전, 리오셀인건 상업화 성공 등 선진기술 추격연구
 - 2000년대는 먹는 내시경, 뇌과학 연구, 치매 조기진단기술 개발 등 원천기술 선도연구
 - 설립 이후 47년간 595조 원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창출
 - KIST를 모태로 총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 국가 주력산업 기틀 마련 및 과학기술 기반 구축에 이바지
- KIST 주요 연구 분야
 - 전문연구소는 뇌과학, 의공학, 청정신기술, 차세대반도체, 로봇·미디어 분야 등 연구
 - 연구본부는 국가기반기술과 미래융합기술 담당
- 홍릉 관련 협력 사업
 - 홍릉포럼: 2012년 7월 홍릉의 역량을 결집한 정책 발굴 추진체로 출범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 및 제안
 - 홍릉기관 사업: 학·연 공동 커리큘럼 운영(고려대학교와 KIST) 및 혁신 클러스터 기반 학·연 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구축(홍릉 OPERA)
 - 서울시 사업 추진: 사이언스 스테이션 개관 및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 2018년 5월 홍릉 비전 실현을 위해 홍릉 클러스터링 추진단 출범
- 홍릉 클러스터 추진 목표와 전략
 -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혁신생태계 인프라 구축, 융합형 인적자원 양성 목표
 - 특구화를 통한 규제샌드박스 조성, 공유 인프라·플랫폼 확보·운영, 산·학·관·민 연계 거버넌스 구축 전략



토론 정리와 전문가 코멘트

- ‘홍릉포럼’과 유사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년 정도 전인데 지금까지 조금씩 꾸준히 발전
 - 1998~2000년 정도 포럼이라는 명칭을 쓰기 전에 ‘홍릉벤처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서울시가 주변 연구기관·대학과의 협의회를 추진하여 1년에 1~2번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KIST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식으로 발전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음
 - 홍릉은 바이오뿐 아니라 종합적인 산업의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동북 지역에 제대로 정착해야 함
 - KIST를 중심으로 R&D를 하고, 창업을 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산업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산업뿐 아니라 공간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음
 -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앵커시설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클러스터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앵커시설 주변으로 많은 기업을 불러들여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음
- 한국벤처재단 원래 이름이 홍릉벤처밸리재단법인
 - 1차 벤처버블 시절에 KIST가 중심이 되어 고려대, 경희대, 산업연구원 등 연구소 및 대학들이 모여 홍릉을 활발한 곳으로 만들어보자고 재단이 태동되었는데, 오히려 홍릉벤처밸리로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지역성에 맞았을 것 같음
- 홍릉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R&D, 창업, 비즈니스 3단계로 나누었을 때 R&D만 잘하고 창업도 잘한다고 할 수 없고, 비즈니스는 불모지
 - 보스턴에는 세계 Top 제약사 20개 중 19개가 모여 있는데, 이곳에는 좋은 대학과 우수한 인력이 있고 좋은 벤처들도 몰려있음. 홍릉도 벤처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 앵커도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음
 -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바이오는 특히 사업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바로 시작할 수가 없음
 - 스타트업이 자기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이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
- 홍릉은 인프라나 여러 인적자원, 핵심역량 등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돈’이 부족
 - 투자재원이 모여야 하는데 스타트업은 실패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심이 없음
 - 초기 시드머니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초기 기업의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
- 홍릉클러스터 추진단 덕분에 어느 정도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서 홍릉펀드까지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초기 클러스터 성장까지는 이룬 것으로 보임
 - R&D 분야나 임상테스트 분야에서 잘하는 곳은 많은데 지역 내에서 서로 협력이 되고 있지 않음

- 홍콩펀드는 하나의 경제적인 혁신주체가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펀드의 총액이 확대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투자자가 바이오 관련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기간도 길기 때문으로, 차라리 펀드 조성 시 운영사를 정할 때 R&D 수익률을 고수익과 저수익으로 구분해서 펀드를 모집하는 방안도 좋을 것
- 홍콩이 클러스터로서 벤처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해주어야 함
 - 공간과 장비 테스트실 등을 조성해서 완전 초기 스타트업을 키우는 방법과 함께 서울시 전체적 입장에서 홍콩이 서울과 전국 단위에서 R&D 분야의 커넥션 부분을 담당해주어야 함
 - 바이오 쪽 임상 전문 컨설팅 기업이나 바이오 발전에 필요한 IT 및 빅데이터는 서남권의 구로, 가산과 강남이 담당하고, 바이오기술 정보와 IT가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중계 역할을 홍콩이 해준다면 정부의 공공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 서울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홍콩과 마곡
 - 마곡과 홍콩이 앞으로 20년간 서로 비교되면서, 경쟁해나가야 함
 - 마곡은 기업들이 집적된 곳이고, 홍콩은 기업 빼고 다 집적된 곳이라 기업들을 불러들이지 못한다면 마곡과 차이가 날 것



[부록 그림 2] 홍콩 도시재생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용산전자상가의 산업활성화, 산업으로서의 용산전자상가』

목적

-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거쳐 서울의 민생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9년 12월 10일 14:00
- 장소: 용산전자 상상가

발표주제 및 토론자

- 발표주제
 - ‘용산 스마트 도심재생과 혁신창업플랫폼’(김도년 Y-밸리 총괄코디네이터)
 - ‘용산기반 전자제조 생태계’(홍석기 차세대융합기술센터 센터장)
 - ‘전자산업을 움직이는 용산전자상가의 산업생태계 운영시스템’(손명기 지역사회연구원 박사)
- 토론자
 -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 박경락 서울산업진흥원 DMC활성화팀 팀장, 김영우 주민협의체 대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등
- 공동주최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부록 그림 3] 용산전자상가 산업활성화 현장점검 포럼

발표 1: 용산 스마트 도심재생과 혁신창업플랫폼

◦ 배경과 방향

- 20세기는 도시의 생산(제조) 기능 쇠퇴로, 산업혁명의 상징인 공장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해, 도시는 서비스와 소비 중심의 산업 구조 형성
- 21세기 도시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첨단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도시 생산기능의 중요성 재인식, 이를 기반으로 기존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과 융합으로 창조인력 유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시 생산 공동체와 산업생태계 유치에 역량을 집중
- 주거(Live), 일(Work), 여가(Play)가 조화롭게 통합된 장소로서 도시 생태계 재생의 중요성 대두
- 도시 경제권의 중요성과 경제 지표의 중심으로 도시가 대두되면서 주요 도시는 창조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
- 창조계층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가들은 문명과 문화를 선도하는데, 이들은 풍성한 문화가 있는 개방성 높은 도시를 선호하고, 도시가 살아 있는 실험실(Living Lab)이자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로 역할할 수 있도록 첨단 스마트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희망함
- 이런 조건을 갖춘 도시들은 도시와 산업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연계하며, 혁신지구와 스마트시티가 동시에 실현됨(뉴욕, 런던, 보스턴)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이 시대가 지향하는 개방, 참여, 공유, 분배로 공유경제·포용도시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여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산업경쟁력 선점을 위한 역량을 집중

◦ 계획과 과정

- 용산전자상가는 개발과 제조, 유통이 융합된, 한국 전자산업 대중화를 이끈 국내 최대 전자상가로, 4천 개 기업들의 30년간 노하우와 컴퓨터 기반의 음향·영상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축적된 전국 최고의 전자제품 유통·판매 인프라
- 그러나 PC시장의 축소와 온라인시장에 대응부족으로 생산과 시장 기능 저하(매출 50% 축소, 공실 20% 증가), 40년 이상 된 낙후 건물과 부족한 도시 어메니티로 쇠락
- 용산 도심 재생을 통한 시장의 활력과 생산 기능(제조)의 재생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서 새로운 산업 문화 창출 가능성이 높은 드론, AR/VR, 로봇 산업을 설정

◦ Y-밸리의 탄생

- 전자산업 기반의 신산업 복합문화 교류 공간이자 디지털 메이커시티인 Y-밸리 구축
-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 5개년 마중물 사업 추진(2018~2022년)
- 크게 기존상가 및 산업 활성화,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상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3개 사업으로 구분

◦ 용산 스마트 도심 재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세계적 역량 보유
- IT와 통신 분야에서 2017년 스마트폰 보급률 71.5%로 세계 4위, 2015년 ICT 발전지수 세계 1위, 3 band LTE-A 세계 최초 개발, 2016년 LTE 커버리지 세계 1위, 2014년 홈 Wi-Fi 보급률 80.3% 세계 1위, 2016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98% 세계 1위, 2016년 초고속 인터넷 속도 세계 1위(13.3Mbps), 세계 최초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제주도), 세계 최초 14 나노급 낸드플래시 개발, 세계 최초 5G 등
- 도시건설과 재생 분야에서 해외 건설 점유율 8.1%로 6대 강국 진입, 2016년 해외 건설 수주 현황 53억 달러 이상, 2016년 해외 플랜트 수주 현황 130억 달러 이상, 2016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7위, 2016년 건설 인프라 경쟁력 11위, 세계 20대 건설사 2개 업체 선정, 세계 30대 설계회사 3개 업체 선정, 4번째 G20 개최국 등

◦ 스마트도시(생태계) 재생

- 스마트 도시재생은 주거, 일, 여가·문화의 융합으로 산업과 교육을 촉진하여 지속해서 진화하는 도시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기존 전통적인 방법과 현시대의 첨단 기술인 정보통신 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도시환경과 장소에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 특히,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생산의 혁신과 함께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의 융합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삶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중심의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도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



발표 2: 용산기반 전자제조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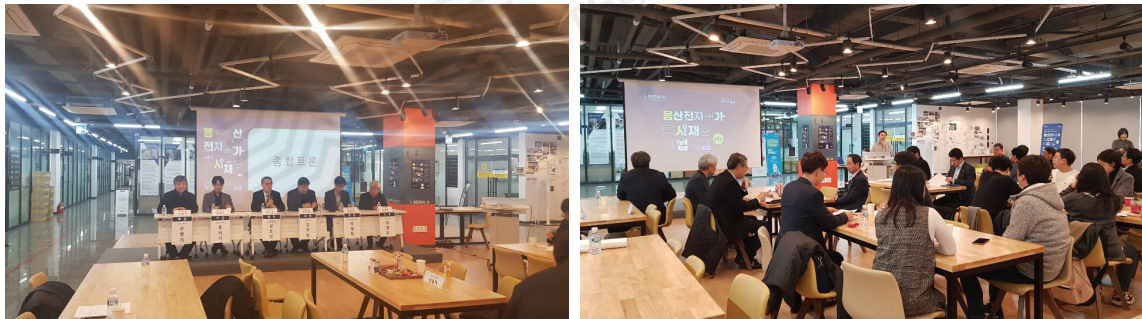
- 도시재생과 산업재건
 - 도시재생을 위한 우수인력 유치, 새로운 도시형 산업의 입주, 역사문화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성에 근거한 전략 수립, 민관 협력전략인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구축 등 시행
 - 산업재건을 위해서는 복합적인(패키지) 사업을 동시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공공의 대규모 사업지원과 지역 핵심자산 확보 및 클러스터링 필요
- 용산 확대 재생산지구
 - 용산 확대 재생산지구는 7개 상가, 6천여 개 점포로, 총 5km의 구간에 전자부품 최대 물류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철도차량기지를 중심으로 서울테크노파크, 글로벌창업센터, 용산 상가를 연결하는 물류/유통-판매 지구
 - E-애자일(Agile) 방법론과 제품을 직접 다루고 체험하는 Doing, 제품이 대상에 의해 사용되는 Using, 제품을 시장에 출품하는 Interacting으로 구성
 - 용산 확대 재생산지구를 용산 E-애자일 지구로 지칭
 - E-애자일 제품은 온도조절기, 액션캠코더, 가정용 로봇, 가정용 카메라, 3D 프린터,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알람시계, 게임기, 무선 헤드셋, 셋톱박스 등 다양
 - 제품화 프로세스는 개념 아이디어부터 시작해 모의실험, α 제품, β 제품, 파일럿제품의 단계를 거쳐 양산
- 용산 제조의 강점
 - 용산에서 제조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최대 9주의 시간 절감 및 배송 물류 고정비 절감
 - 전 공정 자동화 및 공정최적화로 중국 심천 대비 50% 비용 절감, 불량률 최소화
 - 12주 이내에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어, 사용자 데이터에 따른 스케일업(개선) 진행 등 유통 및 사용자경험 확보 가능
 - 최대 2차 스케일업(3차 제품) 가능, 중소기업 기술의 축적 등 환류 및 스케일업



토론 정리와 전문가 코멘트

- 상인회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용산에서 좋은 제품이 생산되기 어려움
 - 지역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제조를 할 수가 없는 곳
 - 용산은 공장 등록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이 잘 되어 회사를 키우려면 용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제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제조를 한다는 것은 모순
 - 1년 매출이 5~6조 원이 되는 시장에서 200억 원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200억 원으로 용산전자상가를 살릴 수가 없음
 - 도시재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 등의 행정적인 서비스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
 - 서울시가 도시재생을 하고 싶어도 통과해야 할 법이 너무 많아서 추진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건 알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인들을 위해 홍보활동을 할 때 어떤 사업의 청사진만 제공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일정과 계획도 같이 알려주면 좋을 것
-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이 변하는 데에는 최소 15~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 어떤 성취를 이뤄나가는지가 중요
 - 이전 청과시장이었던 용산을 전자상가로 바꿨을 때의 비전은 일본의 아키하바라가 모델이었는데, 현재 아키하바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어서 장기 비전을 갖고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 세운과 용산, 구로 중 제조업이 남아있는 근처는 거대한 부품 내지 전자상가가 남아있지만, 서울시에서 유통이나 물류와 연계되지 않고 도심제조가 홀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
 - 그러므로 용산이 생각보다 완성품 제작의 역사가 없는 곳으로, 여기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완성품이 나오는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용산 역사상 처음이 될 것
- 용산이 시제품을 만들고 초도 생산까지 한 다음, 수도권에서 양산할 수 있는 곳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가 숙제
 - 많은 전문가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특화된 전문 메이커스페이스를 갖추어야 하고, 이곳 기존 상인들과 최근 많아진 오피스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봐야 함
 -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보다는 생산의 앞단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주변 소비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 좋을 것
- 제조업 등록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와 공공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함
 - 용산에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등록은 가능
 - 등촌동에 증기청 창업보육센터 시설이 있는데, 증기청과 같은 정부 쪽 지원사업을 연계하면 용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 서울시에 창업보육 기관이나 장소들이 매우 많은데, 흩어져있는 여러 공간과 자원을 집중

- 시키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서울 글로벌창업센터가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도 서울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되어 있음
- 3년 전까지도 외국인이 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많은 법을 바꿔서 창업이 쉬워짐
- 용산구가 상상가 앵커시설을 짓기로 결정하고 서울시가 비용을 투입하여 상상가 라운지, 교육센터, 창업공간을 마련
 - 용산전자상가 2~3층은 기업이 용산구에 기부체납한 공간으로, 3층에는 상상가 라운지를 만들고 2층에 디지털 스페이스, 디지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마련
 - 용산은 지리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좋은 곳으로, 현재 젊은 사람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문화복합허브를 계획 중
 - 창업문화복합허브는 아래층에 박물관, 전자박물관, 서점 등 기반시설을 만들고, 중간에는 창업문화복합허브, 그 위로는 젊은 사람들의 창업을 24시간 도와주기 위해 숙박시설도 마련할 계획
 - 메이커스페이스는 시에서 무료로 제공한 57가지의 공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속공예, 목공, 3D프린터, 재봉장비 등으로 구성
 - 상상가 사업이 끝난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함



[부록 그림 4] 용산전자상가 산업활성화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